



회화 작품:《길》

죽을 고비에서 살아난 계열 이야기

# 하늘이 내린 홍복

명혜 정기 간행물



- "유일무이"한 존재를 목격한 미국 양의사
- 대난을 겪고 크나큰 복을 얻다
- 문천 지진으로 산이 무너지던 그 순간

제 10 기





그림: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다

|              |    |   |
|--------------|----|---|
| 서두 일문        | 1  | 우연한 기회가 소중한 인연으로                          |
| 인간 기적        | 2  | 꽃바다에서 마음껏 숨쉬다                             |
|              | 4  | 사장님 가족의 행복한 설 명절                          |
|              | 5  | 우연히 만난 사람                                 |
|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다 |    |   |
|              | 6  | “유일무이”한 존재를 목격한 미국 양의사                    |
|              | 10 | 기나긴 밤이 지나니 아름다운 노을이 펼쳐져                   |
| 복성이 높이 비치다   |    |   |
|              | 14 | 생명의 봄                                     |
|              | 16 | 대난을 겪고 크나큰 복을 얻다                          |
| 해외 진상        | 20 | 파룬따파 흥전 세계                                |
| 행복한 가정       | 22 | 우리 가족과 우리 마을 이야기                          |
| 길연 구명        | 26 |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는 한 마디에<br>차 내 사람들, 생사 재난 모면 |
|              | 28 | 문천 지진으로 산이 무너지던 그 순간                      |
| 심신 정화        | 30 | 운명  |
| 진상 명심        | 33 | 《위화》중공의 “분신자살”사기극 폭로                      |

## 《위화》중공의 “분신자살”사기극 폭로

.중공은 1999년 7월 20일에 파룬궁을 박해한 후, 끊임없이 거짓을 꾸미어 죄를 들쭉거리 모함했다. 중공은 파룬궁에 대한 “투쟁” 고조를 일으키기 위해 2001년 1월 23일에 치밀하게 기획하고 연출한 이른바 “천안문 분신자살”의 새빨간 거짓말로 파룬궁에 대한 사람들의 증오를 선동하며 더욱 잔혹한 박해를 진행했다.

그러나 CCTV에서 방송한 녹상에 도리어 많은 허점이 폭로되면서 이른바 “천안문 다섯 사람 분신자살” 사건은 세계를 놀래운 거짓 사건으로 되었다. 신당인 텔레비전에서 제작한 “천안문 분신자살”을 폭로한 기록편 《위화(伪火)》(《False Fire》)가 제 51기 콜롬비아 국제 영화제에서 영예상을 받았다(오른쪽 그림은 기록편 《위화》의 토막 장면).

2001년 8월 14일 국제 교육 발전 조직 (IED) 은 연합국 회의에서 2001년 1월 북경에서 발생한 “천안문 분신자살” 사건에 대해 중공의 “국가 공포주의” 행위라고 규탄함과 아울러: 분신자살 비디오 분석을 통해 옹근 사건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연출”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확실한 증거에 직면한 중공 대표단은 말문이 막히고 변명이 없었다. 그 성명은 이미 연합국에 등록되었다.



▲ CCTV에서 불에 타 죽었다던 류춘링은 당시 3명 군인 경찰 포위속에서 머리에 치명적인 한 매를 맞았다. 류춘링은 맞아 죽었다.



▲ “CCTV 기자”는 격리 옷을 입지 않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가까운 거리에서 “화상”을 입은 어린 여자 아이 류쓰잉에게 인터뷰를 한 것은 의학 상식을 위반 한 것이다.



▲ “분신자살”자 왕진동의 옷은 이미 큰 불에 “타서” 망가졌지만, 두 다리 사이에 있는 휘발유를 담은 비닐 음료병은 새것처럼 새파랗고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 경찰은 그의 옆에 서서 꾸밈을 헐조하고 있다.

수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 장인 장모를 찾아뵙고, 장인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때, 나는 “일찌기 제게 운명을 믿느냐는 물음에 나는 믿지 않는다고 답했어요. 이제 나는 믿습니다.” 고 말했다.

### 운명에 대한 세 번째 인식

파룬따파 사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련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인생행로를 개변해 줄 수 있으며, 또 오직 수련해야만 비로소 개변할 수 있다.” 사부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한 사람, 당신의 생명 중에 본래 수련이 없었으나 현재 당신이 수련하려고 생각하면, 그럼 이후의 길을 당신에게 새롭게 안배해 주고 당신의 신체를 조정(調整)해 줄 수 있다.” 사부님의 법을 읽으며 나는 절망에서 생명의 희망을 보았다.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했다: 인간은 정말 영혼이 있는가? 인생에 정말 윤회가 있을까? 수련하면 정말 불, 도, 신이 될 수 있을까?

기독교는 300년 넘게 박해를 받아왔는데, 왜 아직도 굳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었다. 파룬궁은 중국 대륙에서 20년간 박해를 당하고, 파룬궁 수련생은 장쩌민과 중공이 “명예상 더럽히고, 경제상 절단하고, 육체상 소멸” 당할 지라도 왜 수천만 사람들이

이 수련의 단체로 끊임없이 들어가고 있을까? 내가 파룬따파를 수련하지 않았다면 오늘까지 이 세상에 살아 있겠는가?

목숨을 구하기 위해 나는 끝내 파룬따파 수련에 들어섰고, 이 만고에 만나기 어려운 기회와 인연을 얻었다. 나는 자신을 수련자로 여기며 정상 출근을 한다. 업무량이 남보다 적지 않아도 “진, 선, 인”에 따라서 스스로에게 엄격히 요구하며 심신이 좋은, 건강한 사람이 되는, 반본귀진의 길을 걷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직접 겪어본 것이 아닌가?

이로부터 중공이 폭력으로 정권을 빼앗은 이후 만들어진 모든 거짓말이 다시는 나를 속일 수 없게 되었다. 중공은 항일을 거짓으로 하고 항전승리의 성과를 훔쳤고, “대약진” 때 “식량 한 무 만근” 이라 했고, 1989년 전 세계에 “6.4”에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고 했다. 초점방단이 “천안문 분신 자살”을 방영한 당시 나는 진짜라고 믿었는데, 진상에서 중공이 파룬궁에 한층 더 피 비린내 나는 박해를 위해 꾸며낸 새빨간 거짓말인 것을 알았다.

나는 수천만 파룬궁 수련생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몸소 겪은 경험으로 중공의 거짓말을 제거시키고, 세상 사람에게 파룬따파가 병을 제거하고 몸을 튼튼히 하는 기이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 높은 경지의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 우연한 기회가 소중한 인연으로

문/원한 (蘊涵)

생활 속의 모든 일은 마치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우연의 일치가 참 많은 것 같다. 이러한 우연의 일치는 무작위로 짜인 것이 아니라, 이미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형은 현지에서 크지도 작지도 않은 벼슬을 하고 있는데 명성이 자자하다. 어느 날 그는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암에 걸렸다고 하자 정신이 와르르 무너졌다.

공교롭게도, 그가 병원에서 검사를 마친 후, 닳을 잃고 잣머리가 된 마음으로 차 옆에 갔을 때, 차창 위에 정교하게 만들어진 “하늘이 내린 홍복” 책 한 권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형은 순간 기분이 탁 트이면서 “하늘이 내린 홍복”이 몇 글자는 좋은 징조라는 느낌이 들었다.

형은 《하늘이 내린 홍복》이라는 소책자를 진지하게 보았는데, 그야말로 사람을 바꾼 것 같이 형수님과 말다툼도 하지 않았다. 형수가 뭐라고 해도 말대꾸하지 않고, 껌소리도 하지 않았다. 나중에 파룬궁 진상 자료를 누가 주던 그는 다 보았다. 누군가 그에게 《9평 공산당》을 주었는데 그는 아주 즐거워하며 다 읽고는 친구들에게 보라고 전해주었다. 형은 파

룬궁 수련생을 찾아가 “삼퇴” (중공 당원 단위 소선대에서 탈퇴)를 했다.

어느 날 형은 갑자기 토하고 설사를 하더니 일곱 구멍에서 피가 났다. 몹시 놀란 가족들은 다그쳐 그를 병원에 보냈고, 병원 전문가는 합동 진찰을 하고 “치료가 필요 없어요. 그의 몸 안의 어혈이 모두 배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깨끗하게 배출한 것은 보기 드문 일입니다.” 라고 말했다. 형은 진상 자료를 보고 진심으로 파룬따파를 믿어 복을 받았다고 말했다.

삶은 여러 가지로 뜻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절망적으로 느껴질 정도다. 그러나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위를 관찰할 때마다, 어떤 기연은 그렇게도 우연의 일치하고, 질서 정연하게 배치된 것을 발견하는데, 마치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 같다: 생명 속에서 마주치는 모든 일을 소중히 여기고, 쉽게 거절하지 말고, 선불리 놓치지 마라, 이유 없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 꽃바다에서 마음껏 숨쉬다

문/린천항(林晨航)

병원에서 “공기 알레르기가 있어 공기가 없는 공간에서만 살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한 군사장이 월급 전액을 병 치료에 썼으나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꽃가루가 흩날리는 계절에, 그는 드디어 마음껏 숨도 쉬고 꽃향기도 맡을 수 있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나는 항공병 제15사단의 한 군사장이었고 13년간 군대에서 복무했다.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아토피 기관지 천식을 앓았고, 이렇게 9년을 앓았다. 기나긴 세월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 숨을 쉴 곳이 없다

그때의 나는: 목은 안으로 움츠리고, 양어깨는 부풀어 올라 멀리에서 보면 머리가 세 개인 것 같았다.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했다. 바닥을 쓸어 떠다니는 먼지가 나의 이목구비를 아주 가렵게 하여 천식을 촉발할 수 있어 클로페니라

민, 시스플라틴, 프레드니손 등 수많은 약물로 억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약물들이 최면을 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온종일 잠에 빠져 활기가 없었다.

나는 해방군 제322 병원에서 여러 번 치료를 받았고 입원하는 일은 일상이었다. 대동시 제3 병원에서 “변태 반응” 실험을 했는데 그때 의사가 30가지 알레르기 과민원인 실험을 준비했다. 27번째까지 했을 때 의사는 “남은 몇 가지는 하지 않아도 돼요. 당신은 공기 알레르기 과민으로 공기가 없는 공간에서만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내가 숨을 쉴

B형 초음파 검사에서 나의 간에 2cm에 가까운 그림자가 있기에 더 큰 병원에 가서 CT를 하라고 의사가 권유했다. 층층 병원의 진단을 거쳐 조기 간암으로 진단했다. 명백한 진단서를 보면 병원이 나에게 내린 사형판결서나 다름없다. 나는 갑자기 온몸이 땀범벅이 되고 머리가 텅 비었다. 나의 인생이 곧 끝날 것이라고 직감하고 있었다. 나는 모든 의욕을 상실했다.

과륜궁을 수련하는 아내가 나에게 권유했다. “나를 따라 과륜궁을 배우시다. 나의 사부님만이 당신을 구할 수 있어요.” 나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병원에 가서 극미 외과 수술을 받았고, 의사는 “이후로 당신은 병원과 관계를 끊지 못하게 되었어요. 두 달마다 한 번씩 검사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육체적 정신적 이중 상처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인생이 희망을 잃고, 삶이 더 이상 다채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활기를 잃고 하루 종일 한 마디도 더 하지 않았다. 나는 외롭고 당황스러워하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 되었다.

학교 지도자는 나를 보고 위로의 말만 했고, 동료, 친구가 날 보러 오려해도 모두 나에게 거절당했다.

얼마 되지 않아 아내와 함께 과륜궁을 수련하는 친구 몇 명이 날 보러 왔고, 많은 불치병 환자가 과륜궁을 수련하고 건강을 회복한 사례를 들려주었다. 한 과륜궁 수련생은 나에게 《인생을 말하다》 비디오 걸작 모음집을 주었다. 하나 하나의 불치병이

과륜궁을 수련하고 신기하게 치유된 사례들은 나에게 생명의 희망을 보여주었고, 나는 이렇게 과륜따파 수련에 들어섰다. 3개월 후에 나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나는 예전의 웃음을 되찾았다. 원래보다 더 성실하게 더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더욱 온화하여 더는 남을 억누르며 말하고 싶지 않았다. 모순에 부닥치면 더는 상대방과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았다. 여동생은 내가 인내성이 있게 변했다며, 딸은 내가 더는 조폭하지 않게 변했다며, 동료들은 내가 더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 스스로도 확실히 변했다고 생각된다. 도박을 끊었고, 술을 끊었고 사람을 욕하지 않는다.

이 연이은 생사고락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든다. 재난을 당한 것은 불행이지만, 나는 운이 좋아 일일이 풀리었는데 이것은 신불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를 보호해준 것은 틀림없이 과륜따파 사부님이며, 아내가 과륜따파를 수련하기 때문이다. 나도 이로 인해 성스러운 인연이 닿았는데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이 연공하면 온가족이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아닌가?





# 운명

문 / 원상루이  
(闻祥睿)



나는 36 살 때, 아내와 함께 장인, 장모를 뵈러 고향에 갔었다. 이야기를 나눌 때, 장인은 나에게 “운명을 믿느냐?” 고 물었다. 이에 나는 “믿지 않는다” 고 답했다. 《주역》을 연구했던 장인은 “나이가 들면 자네도 믿게 될 것이네. 나는 운명을 믿을뿐 아니라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네.” 라고 말했다.

나는 1960년대에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공산당의 당문화를 주입받아, 일찍이 철저한 무신론자였다. 그러나 50여 년간 기복의 많은 삶과 슬픔의 생이별을 겪으면서 나는 “운명”에 대한 세번의 질적인 인식이 있게 되었다...

## 운명에 대한 첫 번째 인식

나는 36살 때, 아내와 함께 장인, 장모를 뵈러 고향에 갔었다.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장인은 나에게 “운명을 믿느냐?”고 물었다. 이에 나는 “믿지 않아요. 운명을 믿으면 사람이 분투할 필요가 있나요?”라고 답했다. 장인은 “나이가 들면 자네도 믿게 될 것이네. 나는 믿을뿐 아니라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네.” 라고 말했다. 장인은 《주역》을 연구했기에 예의상 나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나는 농촌에서 태어났기에 어렵게 얻은 행복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을 안다. 나는 집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였다. 성적이 뛰어나 시의 제2차 교육 전문가가 되어 젊은 나이에 고 급직함으로 승진했다.

불도신에 대해 나는 경외심이 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불도신에 대한 많은 이야기에서 그들은 모두 정의의 화신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뱃속으로부터 이것이 진실이라고 믿지 않으며 이것은 단지 이야기뿐이라고만 생각했다. “무신론”의 뿌리는 이미 나의 생명의 깊은 곳에 심어졌다.

## 운명에 대한 두 번째 인식

2015년, 나의 운명을 바꾸어 놓아 큰 타격을 입었다. 어느 한 번, 신체 검사를 할 때

곳이 없다는 말과 같다.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 북경에 가서 명의의를 방문하고, 절에 가서 경을 읽고, 참회하고, 심지어 조상의 무덤을 옮기는 등등, 월급 전액을 병을 치료하는데 썼지만, 병은 점점 심해졌다.

## 상쾌히 숨을 쉬다

1998년 말에, 나는 호남성 평강 축목국 동물방역 검문소로 전입하여 근무하였다. 1999년 5월 아내는 《전법륜》(파룬궁 주요 저작)책과 파룬궁 연공 동작 그림을 집에 가지고 와서 이것은 좋은 책이며, 파룬궁을 수련 하면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책을 집어 들었는데 즉시 책에서 말한 이치에 끌렸다. 나는 한 번 다 읽은 후, 연공 동작 그림 설명에 따라 거울을 보면서 동작을 배우기 시작했고, 이렇게 파룬따파의 수련에 들어섰다.

두 달 반 후, 꽃가루가 날리는 계절이었었는데 나는

알레르기 증상이 없어져 마음껏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그 후로, 나는 병마의 시달림에서 벗어났고 천식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았다. 나의 몸에서 파룬따파의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기이한 효과가 실증되었다!

## 불운이 나한테서 멈췄다

나의 가족사를 더듬어 보면 아버지 위로 4대가 모두 알레르기 기관지 천식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아무도 모면하지 못했다. 아버지 형제자매 5명 모두 60세까지 살지 못했고, 큰아버지 한 분은 30대 초반에 미혼으로 별세했다. 하지만 나는 파룬따파를 수련하여 아버지의 나이보다 더 살았으니 4대가 일찍 죽는 불운을 모면한 것이다.

나는 죽음이 임박한 숙명에서 활달한 마음을 가진 인생을 살게되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리홍쯔 사부님께 마음에서 우러나온 감사를 드립니다,



《전법륜》은 파룬따파의 주요 저작이며 지금까지 외국 문으로 가장 많이 번역된 서적이다.

파룬따파 창시인 리홍쯔 선생은 이 저작에서 파룬따파 “진, 선, 인(真, 善, 忍)”의 법리를 논술했는바, 본질적으로 질병의 원인을 설명하고 수련자에게 해결의 길을 제시하셨다.







## 사장님 가족의 행복한 설 명절

문/링하오 (凌浩)

나의 사장님의 큰형은 설 전에 위가 불편해 현병원에 검진받으러 갔다. 의사가 X선 투시 사진을 보고 그다지 좋지 않다고 하자 가족들은 투시 사진을 들고 다시 북경의 큰 병원으로 갔다. 북경 전문가들은 췌장암 진단을 내리고 살 가치가 없다고 했다.

더 심한 것은 담이 더욱 위급하여 당장 수술해야 했다. 전문가들은 담즙이 창자로 바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수술을 해주었다. 이것은 작은 수술이지만, 암 환자들은 면역력이 쇠약하기 때문에 상처가 오랫동안 아물지 않는다. 연일 수혈을 하고 있지만, 수혈할수록 상처의 상태가 심각해졌다. 며칠 동안 3만여 위안을 썼는데 의사가 속수무책이었다. 숨이 간들간들한 혈육을 보면서 일가족은 정말 매우 슬펐다. 평소에 사장님은 늘 우리가 말하는 파룬따파 진상을 들었고 《전법륜》을 보았었다. 그의 큰형도 《전법륜》을 몇 페이지 읽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파룬궁은 정부의 선전과는 달리, 전부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사장님한테 형님에게 “파룬따파는

는 좋습니다, 진선인은 좋습니다” 를 읽게 하라고 알려주었다. 사장님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이미 병 위독 통지를 내렸다. 환자가 온몸에 땀이 나면서 몸이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보통 이것은 중국 민간에서 죽기 전의 징조로 여긴다.

사장은 형의 컷전에 다가가 그에게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를 읽으라고 하자 형이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음에 가까웠던 이 사람은 많은 의사와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을 때 눈을 떴다.

그는 매일 마음속으로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를 읽으며 하루하루를 지냈는데 그는 앓을 수 있고 설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사장님과 “둘째야, 나는 파룬궁을 배우고 싶다. 어서 가르쳐다오.” 라고 말했다. 설 전에 그는 건강을 회복하여 퇴원했고, 온 가족이 즐겁게 모여 설을 보냈다.

그 기적에 대해, 의사들과 가족들 모두 경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의 형이 집에 돌아온 첫 번째 일은, 바로 지체없이 파룬궁 수련생을 찾아 파룬궁을 배우고 싶었다. 이 신기한 모습을 보고, 사장의 어머니, 아내, 딸, 넷째 동생, 형수님 등도 잇달아 파룬궁을 배우려고 했다.



소리가 뒤엎겨 모든 사람의 심장을 찢르고 있었다. 사람들이 이 갈팡질팡하며 사방으로 뛰었는데 몇 걸음도 뛰지 못하고 구르는 바위에 뭇개지고, 산사태로 순식간에 사람들이 매몰되고...

며느리와 동료 모두 눈앞의 광경에 넋을 잃었다. 그 순간 며느리는 출발할 때 시아버지의 당부를 떠올리며 동료의 손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어서 빨리 나와 함께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를 읽어요” 며느리는 젖먹던 힘을 다하며 큰 소로 외쳤다.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선인은 좋습니다!” 동료도 마치 이는 생명을 구하는 비결임을 아는 듯이 며느리를 따라 외쳤다.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선인은 좋습니다!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선인은 좋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 나뭇굴던 돌들이 마치 눈이 달린 듯이 그들을 비껴 갔다. 두 사람은 나무 등지를 찾아 그 안에 숨어서 쉴 새 없이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선인은 좋습니다!” 를 읽었다.

얼마가 지나서야 지진은 서서히 가라앉았다. 온 산의 사람들 중 그녀 둘만 조금도 다치지 않았다. 방금까지도 아름다운



은 경치와 기이한 봉우리를 찬사했는데 지금 이 순간은 마치 인간지옥과도 같았다. 폐허가 된 담벽, 산에 시체가 도처에 널려 있는데, 시체가 온전하지 못한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몸과 머리가 떨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뇌가 터졌고... 이 광경을 보고 그녀 둘은 친후탕처럼 녹초가 되어 땅에 주저앉았다. 동료는 갑자기 하늘

이 내린 재난에서 파룬따파의 신기함에 놀라 정신을 못 차렸다. 그녀는 며느리의 큰 덕을 보았는바 며느리와 함께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를 읽었기에 목숨을 살렸다.

재난에서 요행이 살아남은 그녀들은 무사히 집에 돌아왔다. 며느리의 동료는 집에 돌아와서 겪은 신기한 일과 처참한 광경을 본 것을 계속 친척과 친구들에게 들려주었다. 며느리는 더욱 감격되어 구사일생의 경험을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말함과 아울러 그녀의 설득하에 많은 사람이 “삼퇴” 를 했다. 이 일을 통해 며느리는 파룬따파는 사람을 구하는 불법임을 알게 되었고, 중공이 대법 제자를 박해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남편이 다시 교란을 당할 때, 그녀는 당당하게 남편을 박해하는 경찰에게 따졌다.



## 왜 “삼퇴” 를 하는가?



중공은 죄가 산더미처럼 쌓여 하늘이 중공을 멸하려 한다. 중공 소선포대, 공청단, 공산당에 가입할 때 모두 오른손을 들어 “그 당에 평생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다. 이것은 독 맹세이므로 공개적인 성명으로 중공 당원, 단원, 소선포대 조직(간칭 “삼퇴”)에서 탈퇴해야만 독 맹세를 제거할 수 있고, 하늘이 중공을 멸할 때 도태를 면하고, 자신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다. 신은 사람의 마음을 보니 진심으로 “삼퇴” 한다면 실명, 가명, 아명으로도 똑같이 유효하다.





그녀들이 청성산 정상에 오르자마자 갑자기 땅과 산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바위가 부서지고 굴러 떨어지자 사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굴러내리던 돌들이 마치 눈이라도 달린 것처럼 그들을 비켜 갔다...

나는 정년 퇴직한 여성 공정사이며 금년에 78살이다. 나와 아들은 파룬따파를 수련한지 20여 년이 되며 남편은 진상을 알고 우리가 수련하는 것을 매우 지지했다. 20여 년간 우리 가족은 파룬따파의 혜택을 받고 있다. 더욱이 며느리는 사부님이 위험에서 그녀를 보호해 주신 후로부터 파룬따파를 지지했다.

2008년 5월 12일, 며느리는 공무로 문천에 회의하러 갔다. 그녀는 이 기회를 빌어 동료와 함께 청성산에 놀러 갔다. 떠날 때, 시아버지가 말했다: “정이야, 사람이 문을 나서면 어떤 일에 봉착할 지 모르기에 위험에 닥칠 때, 꼭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읽어야 한다!” 며느리는: “알겠습니다.”라고 말했다.

1999년 7월 20일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해서부터 우리 가족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다. 며느리도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

아들은 중공 인원에게 자주 교란 받았

고 로교소에서 박해를 받은 적도 있다. 선달 그믐날, 경찰이 집에 쳐들어와 아들을 납치했다. 며느리가 손자를 배웠을 때, 만삭의 전날, 현지 “610”에 가서 납치당한 남편을 내 놓으라고 했는데, 하마터면 행패를 부리는 경찰에게 밀려 넘어질 뻔했다. 손자가 두 살 때, 며느리가 아이를 안고 법을 어기지 않았음에도 감금된 남편을 면회하러 로교소에 갔다. 경찰은 일년 내내 아래층에서 우리 집을 감시했고, 또 폭력으로 자물쇠를 부수고 집에 강제로 침입했다. 이 모든 것은 며느리에게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주었다. 그러나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일러준 말이 그녀의 목숨을 구해 줄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그녀가 동료와 즐겁게 산수 풍경을 감상하던 그날, 그녀들이 청성산 정상에 오르자마자 갑자기 땅과 산이 흔들리고, 바위가 부서져 마구 날리고, 산지가 순식간에 한 줄기 골짜기로 뚫렸고, 산 꼭대기에서 갑자기 울음소리, 비명소리와 돌이 구르는

## 우연히 만난 사람

문/양만(杨曼)



새해에 나는 원림 국의 한 경비원을 만났는데 그는 새로 온 사람이다. 마침 나의 가방 안에는 파룬궁 진상 소책자 한 권이 있었기에 그에게 주었다.

그가 받아 보고는 “파룬궁인가요?” 라고 말했다. 나는 웃으며 “맞아요, 파룬궁은 복을 전하고, 부처님은 인연이 닿는 사람을 구하니 한번 보세요.” 라고 말했다. 경비원이 말했다. “공산당이 파룬궁을 그렇게 박해해도 당신들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죠.”

나는 그에게 파룬따파의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기이한 효과 및 세계에 널리 전해진 성황과 “삼퇴”(중국 공산당 당원, 단원, 소선대에서 탈퇴) 고조를 알려주었다. 그는 선뜻이 가입했던 소선대에서 탈퇴하고 또 파룬따파의 서적을 보고 싶어 했다.

나의 가방에 《전법륜》책 한 권이 있는 것을 그는 억지로 달라고 했다. “나는 20년간 이 책을 읽었으며 전 세계에 1억 명이 이 책을 읽고 있어요. 이 책은 귀중한 책이기에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다 보고 돌려줄 수 있나요?” 라고 하자 그는 “예, 꼭 돌려드리겠어요.” 라고 말하며 보물을 얻은 듯이 《전법륜》을 숨

저고리 속에 넣고는 떠날 때 “고맙습니다” 고 말했다.

한동안 지나서 나는 그를 보러 갔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누님, 부탁드립니다. 《전법륜》책을 한 권 더 주세요.” 라고 말하자 나는 물었다. “책은요?” 그는 “일을 하던 형이 빼앗아 갔다” 며 또 “나는 20년 동안 피부병으로 견딜 수 없는 간지러움과 아픔으로 고통스러웠어요. 고름과 피를 흘리어 어떤 처방이든 다 썼고, 크고 작은 병원에 다니며 1년 동안 모은 돈을 다 썼는데, 조금도 낫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매일 밤 《전법륜》책을 몇 페이지를 본 후, 사람이 바뀐 것처럼 마음이 후련해지고 술도 마시고 싶지 않았어요. 온몸의 피부가 간지럽지도 아프지도 않고 흉터가 가라앉았어요. 이 파룬궁은 너무 신기해요! 대단해요! 너무 좋아요! 내가 이 일을 여러 사람에게 말한 후, 그 형이 한사코 이 책을 보겠다며 바로 가져갔어요.” 라고 말했다.

“당신은 정말 인연이 있어요. 사부님께서 당신을 도와 병을 없애버렸어요!”

다음날 나는 그에게 또 《전법륜》책 한 권을 가져다주었다. 그는 매우 기뻐하며 내가 이 아름다운 복음을 그에게 알려준 것에 감사했다!



# “유일무이” 한 존재를 목격한 미국 의사

문/샤밍(夏鸣)

미국 의사 Kaiser가 호기심에 캐물었다: 당신의 불치병을 치료해준 “중국의 비밀?” 은 무엇인가요?

열심히 노력하여, 미국에서 꿈을 이루다  
쑨난(苏楠)은 1980년대에 미국으로 유학을 간 학자로 토목공학을 전공했다. 그 시절의 중국인이 미국에 갈 수 있다면 귀중한 인재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많은 중국인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었다. 한창 젊고 재능이 넘칠 때에 그는 학업에서 성공했다.

쑨난은 열심히 공부하여 2년여 만에 졸업했다. 그는 바로 높은 연봉의 직장을 구했고 이어서 집과 차를 샀다. 미국에서 아주 빨리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쑨난에게는 인생이 득의양양할 때라고 말할 수 있다.

예측불허한 인생에 들이닥친 재앙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데, 심중팔구 이것은 아주 정상적이다. 그러나 갑자기 찾아온 병으로 쑨난은 공포심이 생겼다.

그는 매일 지나치게 많은 양의 오줌을 배출하기 시작했으며 그칠 줄 몰랐다. 오줌을 15,000ml 배출했는데 정상인의 7~19배였다.

당시 스탠퍼드 대학의 Lin 의사는, 의학계에서 인정받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내분비과 의사이다. 그는 쑨난에게: 당신의 증상을 중국어로 “요붕증(尿崩症)” 이라고 합니다. 뇌하수 부위에 혹이 하나 생겼으므로 수술을 해서 혹을 떼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계측기 검사도 혹을 찾을 수 없고, 혹을 찾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므로 의사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양의학이 안 되면 한의를 찾아가자! 쑨난은 대륙으로 돌아가서 전문가를 찾아다니며 별수를 다 써보았다. 생명이 이 정도에 이른 쑨난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한 줄기의 희망이 있다면 바로 시험해 보았다.

일 년 내내 냉방에서 지내다

구가 말했다: “아주위험했어요!”

타이어를 교체하고 우리는 계속 운행했다. 나는 아이에게: 어떻게 갑자기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대법사부님 나를 구해주세요”를 외치려는 생각을 했는지 가고 묻자 아이는 말했다: 할머니가 알려주었어요! 우리 차에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선인은 좋습니다”가 걸려 있지 않아요?!

평소에 나는 차에 걸린 이 걸쇠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 “파룬따파는 좋습니다”이 한 마디로 위험할 때, 파룬따파 사부님의 보호를 받아서 우리는 생사가 걸린 큰 재난을 피하게 되었다. 파룬따파 사부님은 정말 너무 자비롭고, 너무 위대합니다! 우리 온가족 및 친구의 목숨을 구해준 파룬따파 사부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길연 구명

비록 우리 부부와 아들은 아직 파룬따파를 수련하지 않지만, 모친의 영향으로 우리는 파룬따파를 믿으며, 파룬따파가 좋다는 것을 믿기에 모친이 수련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우리 온가족 및 친구 온가족은 일찍 “삼퇴”(중공의 당원, 단원, 소선대에서 탈퇴)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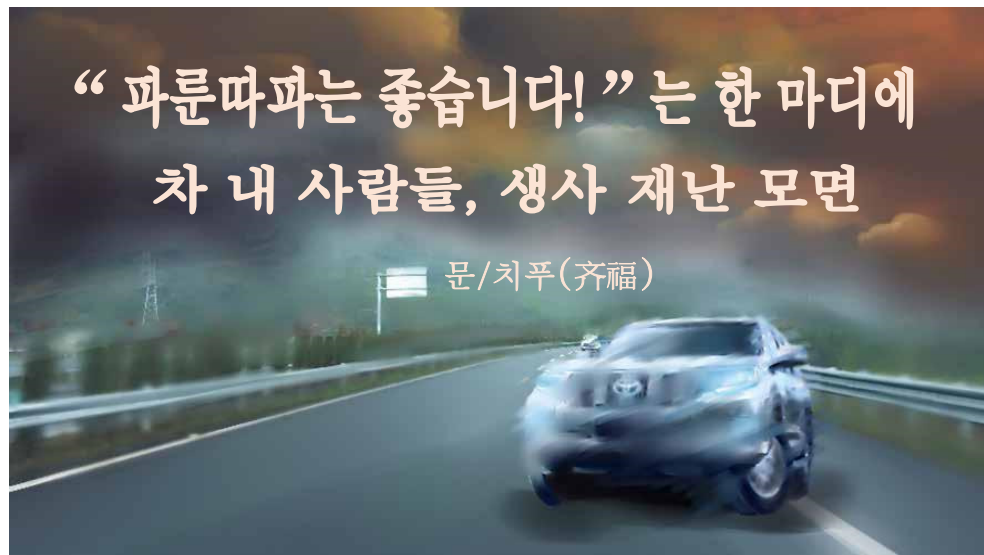
우리는 장사를 하기에 생

활속에서 그리고 장사에서 현금 유통이 매우 크다. 우리는 항상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이 한 마디가 적혀 있는 진상 지폐를 쓰고 있으며, 때로는 또 일부 자료와 호신부 등을 장사하는 파트너에게 전해주었다.

이 일을 겪고 우리는 파룬따파 사부님을 더욱 믿으며 파룬따파를 믿는다. 지금 우리 온가족과 친구 모두 파룬따파 수련에 들어섰다.

## 목숨을 구하는 길연을 믿으면 복받는다

왜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法轮大法好)”, “진선인은 좋습니다 (真善忍好)”를 읽으면 복받을 수 있는가? “사람 마음의 생각을 천지가 다 알고” 있으므로 파룬궁이 박해를 받고 있을 때, 당신이 시비를 똑똑히 구별하고, 선양함을 지지하고, 사악함과 한패가 되지 않고, 시대 조류에 휩쓸리지 않는 이 소중한 일념을 신이 볼 수 있으므로 하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선과 악엔 응보가 따른다”는 천리를 드러낸 것이다. 명혜망 기사에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파룬따파하오”를 믿었기에 위험한 상태를 안전하게 만든 사례가 무척 많다.



문/치푸(齐福)

이는 아슬아슬한 경험이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들 녀석이 갑자기 달려달라는 한 마디를 외치자...

나는 올해 50살이고 창춘 사람이다. 나의 모친은 파륜따파를 수련한다. 나 역시 생사의 재난을 겪은 후, 수련을 시작했다.

작년 8월 17일, 우리 가족 4명과 친구 부부 일행 6명이 차를 몰고 북경에서 장춘의 본가로 돌아갔다. 이 차는 지난해 6월 새로 산 토요타 패도이다. 홍성 휴게소에서 점심을 먹고는 바뀌어서 아들이 차를 몰았다. 반금에서 20여km 떨어진 곳에 왔을 때, 차 왼쪽 뒷바퀴가 갑자기 터지면서 차가 통제력을 잃고 고속도로에서 아주 심하게 우왕좌왕했다.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서 멍해졌다. 이길은 경심고속인데 동북삼성에서 북경으로 가는 제일 바쁜 구간이므로 큰 차, 작은 차, 객차, 화물 차가

잇다랐다. 게다가 여름 방학 기간이므로 스스로 운전하며 여행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들이 갑자기 소리쳤다: “대법 사부님 살려주세요! 파륜따파는 좋습니다!” 차 안의 사람들은 꿈에서 깨어난 듯, 즉시 큰 소리로 외쳤다: “파륜따파는 좋습니다! 진, 선, 인은 좋습니다!” 몇 번 소리를 질렀는지 모르는데 차가 멈췄다. 모두 급히 차에서 내려 차를 갓길에 밀어 놓고 안전 주의보를 설치했다. 그제서야 문득 우리 차가 통제력을 잃은 바로 이 3~4분 안에, 이렇게 번잡하던 고속도로에 뜻밖에 차 한 대도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다!

순식간에 화물차와 버스, 자가용이 물밀듯이 밀려와 뽕뽕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친

쭈난은 항상 탈수상태이고, 몸의 신진대사 체계가 비정상이었다. 혈지가 높고, 혈압이 높아 여러 가지 병들이 잇따라 생겼다.

그는 더운 곳에 갈 수 없었는데 더운 곳에서 조금만 움직이면 까무러쳤다: 그는 몸에서 땀이 나는 법이 없었고, 뜨거운 여름에 까무러치는 상황에도 땀이 나지 않았다. 쭈난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시의 베이 지역에 살고 있다. 그곳은 4계절이 봄과 같지만, 그는 일 년 내내 에어컨을 떠날 수 없어서 십여 년 동안 냉방에 묻혀있었다: 집을 나서면 차 안에 냉기가 있고, 사무실에 냉기가 있고, 집에 가도 냉기가 있어 일 년 내내 냉기에 잠겨 햇빛을 감히 볼 수 없는 그런 고통은 형용할 수 없다.

그는 한 사람에게 건강한 몸이 없으면 아무리 휘황찬란한 인생도 생기를 잃게 되며, 무슨 사업이며 전도이며 등등이 병통의 시달림 하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쭈난은 자신의 운명을 잘 알고 있었다. 요붕증은 세계적으로 매우 희귀한 내분비 질병으로 현대의학은 치료할 수 없다.

막혔던 앞길이 열리고, 죽을 고비에서 다시 살아나다

쭈난은 하나의 이치를 깨닫게 되었다. 바로 마음 닦음과 연공의 관계이다. 수련은 동작뿐 아니라 마음도 닦아야 하고 “연공”은 “마음 닦음”을 뒤따라야 한다. 다시 말해서 연공보다는 마음 닦음을 우선 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속담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고 하듯이 삶을 갈망하고 있던 쭈난은 드디어 서광을 보게 되었다.

1997년 4월 6일은 쭈난이 잊을 수 없는 날이다. 그날 파륜궁 창시자이신 리홍쯔 사부님께서 친히 샌프란시스코 미생당에서 설법하신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살아남기 위해 한 가닥 희망도 놓치려 하지 않았다.

쭈난은 그날 리홍쯔 사부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다. 쭈난이 대청에서 걸어 나왔을 때, 하나의 이치를 깨닫게 되었다. 바로 마음 닦음과 연공의 관계이다. 수련은 동작뿐 아니라 마음도 닦아야 하고 “연공”은 “마음 닦음”을 뒤따라야 한다. 다시 말해서 연공보다는 마음 닦음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는 쭈난이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

다. 그는 병에 걸린 이후에도 많은 다른 기공을 연마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그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

파륜따파를 수련한 후 쭈난의 몸은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쭈난의 몇십 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은 변하지 않았다. 냉방은 이미 그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동반자였다.

의연히 정의를 성원하다

1999년 7월, 중공은 중국 대륙에서 파



룬공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해외의 많은 파룬궁 수련생들은 중국 영사관에 가서 항의하였다.

샌프란시스코 연공 점에서 나이가 많은 아주머니 한분이 쑨난에게 전화로 “우리는 워싱턴 미국 국회로 가서 자신들이 파룬궁을 수련하고 이익을 얻은 상황을 말하려 해요. 바른 것인가 사악한 것인가는 우리가 가장 잘 알지요. 그런데 나는 영어도 모르기에 당신이 같이 가 주실래요?” 라고 말했다.

쑨난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갔다.

7월의 워싱턴,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그들은 택시를 타고 국회 산장에 도착했다. 문을 나서자 열기가 밀려왔다. 쑨난은 문득: 아, 이렇게 더워, 나는 더운 곳에 가면 기절할 수 있으니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쑨난은 서둘러 영어를 모르는 아주머니에게 “저것 보세요, 몇백 명 파룬궁 수련생이 연공하고 있어요, 어서 빨리 저기로 가세요.” 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쑨난은 더위를 피하려고 나무 그늘쪽으로 갔다. 나무 아래까지 왔을 때 쑨난은 또 아는 파룬궁 노수련생을 만났는데 그는 “이보게, 멀리에서 왔는데 여기에서 바람을 쐬다니? 여기에 있지 말고 그 들을 따라 앞아가서 연공을 하게나.” 라고 말했다.

쑨난은 쑥스러웠다. 그래, 다들 거기에서 땀을 비 오듯 흘리며 연공하고 있는데, 자신이 오자마자 시원한 바람을 쐬려 한 것이 매우 미안했다. 야! 큰맘 먹자. 빨리 가서 그들과 함께 단체 연공을 하자.

### 땀과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렸다

이때, 다들 한창 파룬궁의 제5조 공법인 정공 가부좌를 하고 있었다. 쑨난은 바로 앉았다.

이 순간을 쑨난은 평생 잊을 수 없다. 20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쑨난의 온몸에서 땀이 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몇 년간, 아무리 더워도 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었던 그가 온 몸이 가볍고 편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이 완전히 해탈된 느낌이었다. 그 순간 쑨난의 눈물은 땀과 뒤섞여 흘러내렸다...

쑨난의 마음은 얼마나 설레고 설레었던가! 이 몇 년간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큰 바위가 마침내 사라지고, 그가 자유롭게 햇빛 아래서 살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일이었다. 쑨난은 그때의 감격과 감



갔다. 친척 친구들이 보고 모두 파룬파와 수련에 들어섰다.

우리 마을에서 20리 떨어진 곳에 30대의 한 젊은 여성이 있는데, 사람은 매우 잘 생겼지만 “경피증”에 걸려 얼굴이 훼손되어 웃는 것이 우는 것보다 더 보기 좋았다. 어디에서도 치료할 수 없자 고통스러워 그는 살고 싶지 않았다. 사부님의 9일 강의 비디오를 보고 다 나아 이로부터 수련에 들어섰다.

파룬파와는 병을 물리치고 몸을 튼튼히 하는 데 뛰어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혜도 열어주었다. 마을은 크지 않지만, 이 몇 년 동안 50여 명의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했으며 다수가 중점대학이다. 연구생도 적지 않은데 졸업 후 다 좋은 직장에 배치되었다.

### 불광이 두루 비추는 명당

십 리 팔촌에서 우리 마을은 땅이 가장 적지만, 해마다 풍년이 들어 집집이 풍족하고, 집집이 화목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어떤 가뭄과 장마도 우리 마을과는 별 관계가 없는 듯이 우리 마을은 해마다 대풍년이 들었다.

마을을 지나던 한 “풍수 대사”가 감개 무량하게 말했다: 이곳은 명당입니다. 그는 이것은 파룬파파가 우리 마을에 내린 큰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없다! 이곳에는 100 여명이 파룬파파를 수련하고 있으므로 수련하지 않는 사람도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수련하기에 어느 정도로 파룬파파에서 혜택을 보았다. 그들은 모두 파룬파파가 좋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진상 호신



부를 지니고 성심으로 “파룬파파는 좋습니다! 진, 선, 인은 좋습니다” 를 읽고 있으므로 불광이 우리 마을을 두루 비추어 명당으로 변했다.

모두들 낮에 일을 하고 밤에 연공점에 가서 《진법론》을 읽고, 연공하고, 심득을 교류했다. 예전에는 하루 일을 마치면 매우 피로했지만, 지금은 달라져 몸에 힘이 솟구치는 느낌이었다.

파룬파파를 수련한 후부터 마을에서 온종일 다투던 부부가 화목해지고, 고부가 서로 싸우지 않고, 이웃이 서로 다투지 않았다. 흠치는 습관이 있던 4형제가 수련한 후 손을 깨끗이 씻고, 자각적으로 단체 연공에 쓰려고 자신의 방영기를 가져왔다. 싸움을 벌여, 십 리 팔촌의 일패라고 불리는 보자는 철저히 회개하고 기꺼이 남을 도왔고, 누구 집에 크고 작은 일이 있으면 모두가 도와주었는데 서로 돕고 서로 께려하며 함께 난관을 헤쳐 나갔다. 수련자는 모두 파룬파파의 표준에 따라 행함으로 온 마을은 화목한 대 가정이었다. 사람들의 삶은 거정, 불평 없이 싸우지 않고 편하게 살았다 —이것이 바로 1999년 파룬궁이 중공의 박해를 받기 전의 우리 마을이다.

가 훌쩍해졌다. 나는 흥분하며 “이봐라, 사부님께서 나쁜 것들을 다 쳐내주었으니 사부님께서 널 책임지고 있다. 너는 정말 인연이 있으므로 고모하고 함께 연공을 하자꾸나, 사부님만이 너를 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이는 그날 바로 함께 연공했다. 잠깐 연공했는데 지쳐서 드러누워 쿵쿵 잠 들었다. 한 잠 자고 일어나니 땀에 흠뻑 젖어 요에는 사람모양이 그려져 있었다. 일어나자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아 마을을 신나게 뛰어다녔다. 그



의 할아버지는 울면서 사부님께 연신 절을 하며 말했다. “우리 손자의 목숨을 살려주신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루 지나서 마을에서 큰 잔치상을 차려 손님을 초대했다. 닭과 오리하고 물고기로 가득 차린 연회석에서 아이가 게걸스럽게 먹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아이는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멍해졌고, 그의 부모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말문이 막혔다.

모두가 희망이 없었던 이 아이가 이렇게 신기하게 살아났다. 이 일이 날개 돋친 듯 십 리 팔촌에 빠르게 퍼졌고, 모두가 기묘함에 탄복했다. 이로 인해 많은 사

람들이 파룬파와 수련에 들어섰다.

큰 조카는 이제 30살이고 키는 1.8미터가 넘으며, 풍채가 출중하고 몸이 건강하며 품성이 고상하다.

### 큰 연공장에서 일어난 신기한 사건

우리 가족이 수련 후의 큰 변화를 직접 목격한 많은 사람이 파룬파를 수련하려는 뜻을 밝혔다. 우리 집은 방이 많고 정원이 커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공점을 세웠다. 우리는 매일 사부님의 설법 비디오를 방영하고, 자주 9일강의 반을 꾸렸는데 마을 사람들이 잇달아 와서 공법을 배웠다.

우리 마을에는 온 몸이 병으로 얼굴이 누렇게 빠가 양상한 한 할머니가 있는데, 무릎 관절이 통증으로 변형하여 두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고, 입을 크게 벌리고 헐떡거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굴림발”, “헐떡이”라는 별명을 지었다. 수련 후, 그녀의 피부는 부드러운 흰 바탕에 붉은 빛이 돌고, 걸음도 신바람이 나고, 호흡도 정상이 되었다. 이러자 그의 남편도 따라 수련했는데 이제 노부부는 90대인데 건강하게 살고 있다.

이 상황을 보고, 쭈즈의 아내는 급히 외지에서 심한 폐기종으로 앓는 년로한 어머니를 모셔왔는데 사위가 업고서 왔다. 할머니는 설법 비디오를 보고 혼자 사위 집으로 돌아가 밤새 땀을 흘리며 잤다. 아침에 일어나니 헐떡이지 않았는데, 더는 폐기종이 재발하지 않았다. 마을의 심한 요독증 환자가 차에 실려왔다. 사부님의 설법을 다 듣고, 정공을 연공하고, 스스로 걸어서 돌아

사한 마음을 평생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다...

### 의학 전문가: 유일무이한 것이다

쭈난은 예전에 불치병에 걸렸을 때, 장기 가정 의사 Kaiser를 요청했는데 그는 미국인이다.

쭈난이 파룬공을 수련한 후, 몸은 매우 편안했기에 오랜 시간 그를 찾아가지 않았다. 어느 날 Kaiser는 갑자기: “아! 이 쭈난이 오랫동안 오지 않았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쭈난에게 전화를 걸었다. “왜 오랫동안 검사하러 오지 않았어요?”

쭈난은 Kaiser에게 “내가 나왔어요.” 라고 말하자 Kaiser는 믿지 못하며: “당신의 이 병은 별다른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나요? 오세요, 와서 혈액 검사를 해보세요!” 라고 말했다.

혈액 검사를 한 결과가 나오자 Kaiser가 쭈난에게: “와, 혈액 결과는 정말 정상입니다! 당신이 어찌 된 일입니까! 당신이 나왔다니? 당신은 어떻게 나왔나요?” 라고

말했다.

쭈난은 그에게 말했다: 나는 중국의 비밀을 사용했습니다. Kaiser는 호기심에 쭈난에게 물었다: “중국의 비밀”이란 무엇인가요? 당신의 불치병을 낮게 해준다니요? 쭈난은 “나는 파룬공을 수련하고 있어요, 파룬공이 나의 병을 치료해 주었어요.” 라고 말했다

Kaiser는 몹시 놀라며 감탄했다. “당신은 매우 특이한 둘도 없는 병례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이 ‘요붕증’은 사실 보기 드문 내분비 질환인데 뜻밖에도 나왔어요” Kaiser는 매우 기뻐했다. 그는 세계상의 “유일무이”한 존재를 목격한 것이다.

쭈난이 아팠던 몇 십 년 동안, 그의 아내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매우 심했는데 쭈난의 병이 낫자 그녀는 유쾌한 기분으로 감탄하며 말했다: “야, 보아하니 이 파룬공은 정말 매우 신기하고 매우 기묘한 것입니다.”

쭈난은 이 경과를 말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는데, 아마 이것이 사람들이 늘 말한

“사내장부가 쉽사리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은 깊은 정에 닿지 않아서” 일 것이다. 쭈난은 사부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나는 몸과 마음이 다시 건강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인생의 참된 뜻을 찾아 수련의 길에 들어서게 했습니다.







황금빛 노을의 아름다운 광채는 생명에 한없는 희망을 가져다주었다. 기나긴 어둠속에서 애타게 기다리던 그녀는 마침내 광명을 맞이하여, 현대 의학의 차가운 결론에서 벗어났다...

우리 집은 하남 사하 변에 있다. 할아버지는 원래 힘들게 배를 끄는 인부였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온 집안이 아껴 쓰며 반평생을 모아 마침내 화물을 나르는 배 한 척을 장만했고, 즐거운 마음으로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나날을 지낼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배를 산 지 얼마 되지 않아 공산당이 왔고, 생각지도 못하게 이 배가 우리 집의 큰 “화근”이 되었다——할아버지에게 “자본가”라는 큰 모자를 씌웠고, 우리 자손은 “개자식”이 되어 버렸는데... 그 시절 겪었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성분이 나쁘다고 남편이 늘 때리고 욕했다. 시집갈 나이가 되어 대상자를 소개해도 “가족 성분이 좋지 않다”고 무산됐다. 몇 년 후, 나는 출신을 따지지 않고 장가들려고 하는 한 남자와 선을 보았다. 결혼 후 남편은 고생을 참고 건디며 절약을

잘하는 대상자를 찾았다고 웃으면서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애석하게도 좋은 나날은 길지 않았다! 남편은 일부 뒷공론을 들었다: 누구는 자본가 마누라를 들이여 자기 진로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 아이가 커서 군대도 가지 못할 것이다... 매우 억울하다고 느낀 그는 짜증을 부렸고, 나에 대한 태도도 갑자기 변했다: 나를 때리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독하게 때렸다. 한번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했는데, 그가 나를 때려 쇄골이 부러졌다.

나약한 여자로서 고통과 슬픔 외에 어찌할 수 있겠는가? 남편에 대한 원한이 가슴 속에 찹찹이 쌓였다. 나는 아이를 위해서 이를 악물고 그런대로 살아야 한다고 자신을 위로했다.

**불치병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허덕이다**

더 불행한 것은 이때 나는 불치병에 걸



는 더할 나위 없이 탄복하며 연거푸 말했다: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이때부터 그의 부모 형제는 모두 진심으로 경의를 표했다: “과륜따과는 좋습니다! 진선인은 좋습니다!”

### 우리 큰 조카의 이야기

내 큰 조카가 9살이 되던 해에 이상한 병에 걸려 음식을 먹을 수 없었는데

떠들며 마음속으로 기뻐했다. 우리는 이수련의 기연을 매우 소중히 여기고 있다.

### 우리 사위와 며느리의 이야기

몇 년 후, 아이가 가정을 이루었다. 며느리는 자궁 미란, 치질 안팎 혼합, 변비, 탈항 병에 걸렸다. 매번 변을 본 후, 깨끗이 씻은 다음 내가 손으로 받쳐서 안으로 넣었는데 너무 고통스러웠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입원하여 수술해야 한다고 했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돈을 쓰고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집에 돌아가 어머니를 따라 연공합시다. 어머니 병도 다 나았는데 나의 이까짓 병이 아무것도 아닙니다!”고 말했다. 집에 돌아오자 연공을 시작했는데 한달이 안 되어 병이 나왔다. 며느리의 부모님은 과륜따과의 신기함과 이수련의 경지를 보고 모두 과륜따과 수련에 들어섰다. 그녀 모친의 심장병, 당뇨병, 경추 골증식이 다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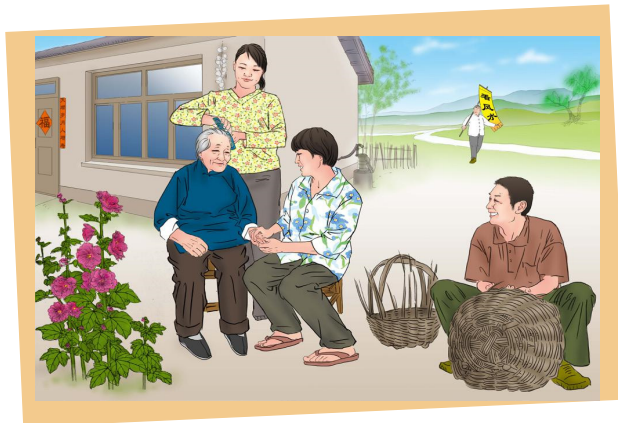
한번은 사위의 머리가 건딜 수 없이 아프니 우리 집에 와서 우리와 함께 사부님의 설법 비디오를 보았다. 비디오를 다 보기도 전에 그의 머리는 아프지 않았다. 그

필 먹어도 토하고 위가 아파서 건딜 수 없었다. 성 병원에서 “음식 알레르기”라는 진단을 내렸는데 의사는 이 병은 결국 굶어죽는다고 말했다. 아이는 나날이 여위어가고, 음식을 조금 먹어도 괴로워 몸을 뒤척이며 소리질렀다: 굶어 죽어도 먹지 않을거야! 반년 후부터 피를 토하기 시작하더니 온몸이 부어서 배는 마치 공 같았다. 서 있을 수 없고, 앉아 있을 수 없고, 누워 있으면 숨이 막혔다. 온몸에 출혈점이 생겼는데 이미 조혈 기능을 상실했다.

아이의 상태가 매우 심한 것을 보고 나는 이를 악물고 아이를 안고 집으로 갔다. 집에 돌아 온 후, 나는 그에게 《전법륜(转法轮)》을 읽어주었다. 읽고 있는데 아이가 말했다: 고모님, 내 뱃속에서 뭔가가 돌고 있는데 갈수록 빨리 돌아요. 나는 기뻐하며 말했다. “과륜이 너에게 몸을 조절하는 것이다. 애야, 너에게 희망이 생겼다. 사부님께서 너를 관계하고 있구나!” 나는 계속 내리 읽었다. 좀 있다가 아이는 또 말했다: 토하고 싶어요. 나는 큰 통을 가져와서 그를 구들가에 엎드려 놓았더니 그는 왈각 왈각 토했다. 반통 정도로 토하자 배

문 / 샤오란 (小兰)

# 우리 가족과 우리 마을 이야기



우리 마을은 십 리 팔촌에서 땅이 제일 적은 마을이다. 그러나 매년 풍작으로 집집마다 넉넉하여 행복하게 살아가니 어떠한 천재나 인재가 닥쳐도 우리 마을과는 무관한 것 같았다.

마을을 지나던 한 “풍수 대사” 는 감개무량하게 말했다: 이곳은 정말 명당입니다!

## 우리 가족부터 말하자면

나는 어렸을 때 선천성 심장병, 뇌 혈액 공급 부족 등 다양한 질병을 앓았다. 결혼 해서 1남 1녀를 낳았다. 출산 후 몸이 더 나빠졌다. 심하게 원기가 쇠약하고 혈액이 부족하여 뼈만 앙상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온종일 온돌에 누워 끄끙거리니, 집안이 온통 근심으로 가득 찼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집안 안팎은 전부 남편 혼자 부담했다. 날이 갈수록 남편의 건강이 나빠졌고, 병원에 갔더니 위 유문 수종, 간 다발성 혈관종양 진단을 받았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지쳐서 그 자리에 누웠는데, 말도 하기 싫어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내가 30살도 못 산다고 했고, 나 자신도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다. 어린 아들딸을 보며 온종일 눈물로 지새웠고, 남편은 근심에 싸여 한숨을 내쉬었다.

1996년, 내가 33살에 우리 가족이 더는 버틸 수 없을 때, 외지의 파룬궁 수련생 두 명이 우리 마을로 파룬궁 사부님의 설법 비디오를 방송하러 왔다. 나는 매일 사부님의 설법 비디오를 보고 집으로 돌아오면 자리에 눕자마자 잠들었고, 새벽까지 자고나면 그 편한 기분은 말할 것도 없이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웠다. 나는 기뻐하며 남편에게 이것은 보통의 기공이 아니기에 당신도 비디오 보러 가자고 말했다.

남편은 나의 변화를 보고 주저하지 않고 갔다. 사부님의 설법 비디오를 본 후, 남편의 위가 나았다. 우리 둘은 이렇게 두 아이를 데리고 함께 파룬따파 수련에 들어섰다. 우리 가족은 이로부터 크게 변모하여 나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마음이 탁 트였다. 식사할 때가 되면, 그들 부자 셋은 문에 들어서자 따끈따끈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온 집안 식구는 웃고

렸는데 원래의 힘든 나날은 잊힌 데 덮친 격이었다!

그것은 1988년이다. 어느 날 나는 갑자기 땅에 쓰러져 인사불성이 되었다. 남편은 나를 북경 선무구 의과대학과 천단국제 한의원에 진료를 보내줬다. 나는 병원에서 “뇌혈관 기형과 부정기 출혈” 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 병은 아주 희귀한 난치병이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병례 중, 나를 포함하여 단 세 명뿐인 데, 앞의 두 사례에서 환자는 이미 사망했다고 한다.

현대 의학의 차가운 결론은 나를 슬프게 했다: 오래 살지도 못하는데, 두 아들 모두 아직 성인이 되지도 않았으니 누가 그들을 돌보겠는가? 나는 정말 울려고 해도 더는 흘릴 눈물이 없었다.

나는 병세가 악화하여 지역 병원에 입원했고, 일 년 중 적어도 300일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 절망속에서 새로운 병이 더해지다

병을 앓는 동안, 한 야전부대 병원에서 감마 칼 한 대를 수입했고, 뇌 외과 수술을 하는 의사는 의학 박사이고, 국내 일류 뇌 외과 전문가라는 소식을 들었다. 가족들은 또 희망을 품고 나를 병원에 데려가 감마 칼 수술을 했다. 수술 후가 더 심할 줄은 몰랐다— 두통이 올 때는 머리와 눈이 터질 것 같은 아픔에 비명을 그치지 못했다.

그 몇 년 동안 나는 직장의 병 단지였고, 집의 돈도 다 써버렸다. 나는 남편에게: “병원에 있을 형편이 아니기에, 집에 돌아갑시다, 집에서 죽는 것이 밖에서 죽

는 것보다는 나아요.” 라고 말했다.

## 구사일생, 파룬따파를 수련하여 광명을 맞아

내가 야전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바로 1996년 가을 10월이었다. 그 해, 파룬따파가 우리 시에까지 전해졌다. 내가 집에 돌아온 지 이틀 만에 직장의 젊은 남자 동료 가 우리 집에 와서 나에게 파룬따파의 병을 제거하고 몸을 튼튼히 하는 방법의 신기한 효과를 소개했고, 또 그의 뇌 종 암이 연공을 통해 완쾌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동료의 경험이 나의 마음을 움직여 놓아 은은히: 자신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어떤 일이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 《전법륜》을 듣고 환골탈태하다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날 밤 나는 아들에게 《전법륜》 공부하러 가겠으니, 자 전거로 우리 집 부근에 있는 연공 점에 데려다 달라고 했다. 그 당시 나는 극도로 허약해, 얼굴이 놀라운 정도로 부었고, 정신이 얼떨떨했다. 연공 점의 몇십 명 파룬궁 수련생들이 둘러앉아 함께 《전법륜》을 읽고 있었다. 나는 한쪽에 앉아서, 그들이 읽는 것을 들었는데, 그 상서로운 장에 있는 느낌이 매우 편안했다. 집에 돌아온 그 날 밤 나는 아주 편안히 잠을 잤다.

일어난 후, 나는 배가 너무 고팠고, 이것은 여러 해 동안 없었던 느낌이었다. 배불리 먹고 안정을 취하니 환골탈태한 것 같이 힘이 났는데 일어서서 걸을 수 있고 온몸이 편했다. 내 마음의 그런 기쁨과 리홍쯔 사부님에 대한 감사는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1999년 중공이 박해 전, 사천 성두의 한 연공점의 파룬궁 수련생들 단체 연공

### 고해를 벗어나 즐거분해지다

셋째 날 아침, 나는 스스로 연공점에 가서 동공을 배웠다. 연공을 마치고 돌아올 때, 우리집 일층 입구에서 아들의 자전거가 있는 것을 보았다.

직장 가족 주택의 치안 상태가 좋지 않아 차를 자주 잃어버리기에 나는 생각 없이 바로 차를 어깨에 메고는 단숨에 5층 집까지 올라와 차를 복도에 놓았다.

그때 아들은 친구와 함께 방에 있었는데 인기척을 듣고 문을 열어 보니, 그의 차가 입구에 있자 깜짝 놀랐다! “어머니, 메고 올라오셨나요?!” 친구도 눈을 크게 뜨고 놀랐다. 며칠 전 그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아들이 나를 업고 1층에서 5층으로, 한 층씩 올라 갈 때마다 내려놓고 쉬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오늘은 거꾸로 내가 차를 메고 1층에서 5층까지 올라갔다.

너무 불가사이했다! 두 아이가 놀라워

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정신을 차렸다: 참말로, 내가 자전거를 어떻게 메고 올라왔는가? 참말로, 내 병이 나은 것이 아닌가?

나는 파룬궁을 수련하고 나왔다! 파룬궁 사부님께서 나를 구해주셨습니다! 감동의 눈물이 갑자기 줄줄 흘러내렸다.

나는 앞드려 리홍쯔 사부님께 절을 올렸다: “사부님, 사부님께서 나를 고해속에서 구해주셨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나는 꼭 파룬따파를 열심히 수련하겠습니다...”

### 대법을 수련하자 마음이 트이고 가정이 화목

파룬따파를 배운 후, 나는 인생의 참된 뜻을 알았고, 사람이 고난을 겪고 병이 생기며, 편안한 생활을 사할도 못 하는 근본 원인을 깨닫고, 과거에 깨닫지 못했던 많은 문제를 깨달았다.

남편에 대한 오랜 원한, 나를 다치게 했던 사람들에게 대한 원한들이 아주 빨리 답답해졌다. 나는 더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열등감이 없어지고, 수심에 찬 얼굴이 없어지고, 오직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복과 자부심뿐이었다.

나의 가족들은 내가 파룬궁을 수련하였기에 온갖 병을 다 제거하고, 사람은 낙천적이고, 너그럽고 상냥해진 것을 보고, 사람마다 파룬따파를 탄복하며 내가 파룬따파를 배우는 것을 매우 지지했다. 내가 연공 하자 집안 식구들이 덕을 보았고 가정이 화목해졌다.

## 파룬따파 홍전 세계

1992년 5월 13일, 파룬궁 창시자 이신 리홍쯔 사부님께서 파룬따파(파룬궁)를 중국 장춘에서부터 전하기 시작했다.

파룬따파는 불가 상승의 수련대법으로서 “진, 선, 인(真, 善, 忍)”을 근본지도로 하며 5조의 느리고 아름다운 공법 동작을 포함하고 있다. 파룬궁이 사람의 마음을 정화하고,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뛰어난 효과로 인해,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전해지면서 아주 빨리 집집이 다 알게 되어 온 중국에 두루 퍼지며 세계로 퍼져 나갔다.

오늘에 이르러 파룬궁은 이미 세계 100여개 나라에 전해졌고 또한 세계 인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

리홍쯔 선생과 파룬따파는 인류 심신 건강에 대하여 걸출한 공헌을 하였기에 여러 나라 정부의 표창 지지 의안과 편지를 3600여 가지를 받았다.

리홍쯔 선생의 주요 저작 《전법륜(轉法輪)》은 이미 40가지 언어로 번역되었고, 여러 민족 억만 명이 수련을 통해 심신의 혜택을 받고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몸소 목격했다.







홍콩



한국



캐나다

남편은 내 수련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 그 몇 해 동안, 그는 모든 재산과 모든 정력을 들여 나의 병을 치료하였으므로 그의 부담은 이미 한계에 달했다. 나의 건강이 빠르게 회복하자 그는 미간을 지프리지 않고 눈웃음을 지었는데 파룬따파와 사부님 은혜에 대한 고마운 감정이 그의 표정에서 완전히 나타났다. 내가 더 많은 시간으로 《전법륜(轉法輪)》을 배우고 연공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는 매일 나를 도와 집안일을 하고, 밥을 지었다. 또 사람을 만나면 파룬공이 어떻게 좋다고 말했다. 누군가 파룬따파에 “부정적인” 말만 하면 남편은 심지어 상대방과 한바탕 논쟁하

려고 했다.

직장의 동료는 내가 파룬따파를 수련하고 죽을 고비에서 살아난 것을 보고 모두 파룬공을 인정했다. 간부를 주관하던 선임 책임자는 나에게 “과거 당신은 한 해에 몇 번씩 병원에 입원했고, 매년 청구한 약값은 단층 건물을 한 채 살 수 있어요. 지금은 연공하고 약값을 청구받지 않는데 매년 직장에 집 한 채를 절약해 준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이익을 보니 직장도 이익을 보았어요. 이 공법은 아주 훌륭하니 잘 연마하세요.” 라고 말했다.

가나긴 어둠속에서 애타게 기다리던 나는 마침내 광명을 맞았다. 아름다운 금빛 노을이 그지없이 눈부시었다.



## 인터넷 봉쇄를 뚫고 진실세계 찾아

돌파프로그램을 얻는 방법

컴퓨터 버전 <https://git.io/fgp> <https://git.io/umexe>

안타크 버전 <https://git.io/fgma>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주의사항

국산 브라우저로 이런 인터넷 주소가 열리지 않을지도 모르니 IE, Edge, Chrome 또는 파이어폭스와 같은 브라우저를 사용할 것을 권의한다.

더 많은 진상을 알려면 파룬따파 명혜망을 방문 [www.minghui.org](http://www.minghui.org)





1996년, 청양은 18살에 중국 대륙의 한 부대에서 복무했다. 그때 그는 젊고 혈기왕성하여, 각종 훈련 활동에서 뒤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는 시골에서 태어났으므로 군에서 사업을 크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동경에 차 있을 때, 그의 꿈은 현실에 의해 무정하게 깨졌다.

#### 이등 을급 상이군인

한 번은 부대 회식 때, 식당에서 해산 물을 많이 샀다. 그날 다 먹지 못하여 다음 날에 먹으려고 남겼었는데 결국 전 중대가 식물중독에 걸려 군인 절반이 병원에 입원했다.

청양은 중독 증상이 가장 심하여 다른 사람들은 모두 퇴원했는데, 그는 여전히 병원에 누워 있었다. 소변에 피가 섞여 군의관과 부지도원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청양을 데리고 제남 군구 총 병원에 갔다. “신장 생체 조직검사”에서 “LgA 신장병”으로 판명됐다. 이것은 원발성 신장 소구 질환으로 임상적으로는 발작성 요혈을 반복하며, 정도 다르게 단백뇨를 동반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일부 환자는 심한 고혈압이나 신장기능 부전

등의 증상을 보인다. 이 병은 갈수록 심해져 말기에는 요독증이 된다.

사고 원인이 명백함으로 청양은 “이등 을급 상이군인”으로 판정받았다.

그는 친한 의사를 찾아 해외의 관련 의학 자료를 찾아보도록 부탁했다. 상대방은 이 병은 외국에도特效약이 없기에 기한의 여유를 두고 치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만일 매일 꾸준히 약을 먹으면, 약 10년쯤 되면 요독증으로 바뀌고, 만일 감기에 걸려 열이 난 후에 약을 먹으면, 약 5년쯤 되면 요독증으로 바뀌고, 만약 약을 전혀 먹지 않고 억지로 버틴다면, 약 이삼 년이면 요독증으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에 이 의사는 그에게 “이 병에 걸리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하면 빨리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당부했다. “나는 겨우 19살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청양은 절망했다.

#### 생명의 꽃이 다시 피어나다

중대장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양의사가 치료할 수 없다면 한의사가 있고, 한 의사가 치료할 수 없다면 민간 처방으로 치료합니다. 그래도 안 될 때, 파룬궁을

갈 것이다.

남편의 건강이 기적처럼 회복되어 그는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으며, 곧 정상 출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부터 슬픔과 절망,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고통이 멀어지고, 파멸하려던 가정에 생기가 생겼다. 즐겁고 활기찼던 그때의 기분은 아직도 묘사하기 어렵다. 우리 가족은 비할 데 없는 기쁨에 잠겼다.

남편이 파룬따파를 수련하고 기사회 생한 기적을 많은 사람이 알았다. 그때 정부 기관, 검찰, 열역소, 방역소, 학교 등 기업의 많은 사람이 모두 우리 집에 와서 남편의 죽을 고비에서 살아난 신기한 이야기를 듣고, 그 기적이 펼쳐진 진실을 깨달은 더없는 기쁨을 함께 나누었

으며, 우리 집은 매일 즐거운 웃음소리에 잠겨 있었다. 신변에 수련하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졌다. 나의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언니, 여동생, 시어머니, 시 아주머니, 시누이 도련님 등 그리고 집집의 아이들이 선후로 파룬따파 수련에 들어섰으며 중병을 앓던 사람도 모두 기적처럼 나왔다. 파룬따파는 우리 가족에 이와 같은 큰 복을 주어 온 가족 모두가 사부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그지없다.

지금까지 남편의 몸은 매우 건강하며 20년 이상 약을 한 알도 먹지 않은 것을 직장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 알고 있다. 파룬따파가 그를 구해주었고, 확실히 하고 확실하게 그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었다!

#### 파룬궁, 몸 건강의 기이한 효과: 무병으로 몸이 가볍다

파룬따파(파룬궁)는 일종의 오래된 불가 수련대법이며, 그것이 병을 제거하고 몸을 튼튼히 하는 신기한 효과는 일찍부터 중 서방 의학계의 시선을 끌었다.

1998년 북경, 무한, 대련 및 광둥성의 의학 전문가들이 3만여 명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의학 조사에서 파룬궁의 병을 제거하고 몸을 튼튼히 하는 효과는 98%에 달했다.

2000년, 의학 작가 푸룬이 일부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인터뷰를 미국의 CBS 방송 프로그램 《HealthWatch》에서 방송했다. 청화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주 공대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은 양선

박사가 인터뷰했다. 그해 39세의 양선은 만성간염에 걸렸는데 한 의사는 그에게 그의 병을 완전히 고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양선은 파룬궁을 수련하고 만성간염이 완전히 회복되었는데, 32가지 검사 수치 모두 정상이었다.

2016년 6월 미국 임상 종양학회 (ASCO) 홈페이지 발표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파룬궁 수련이 암의 증상을 완화 또는 완쾌시킬 수 있다.



목적과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때, 나는 고민을 잊었다.

특히 단 며칠간의 연공으로 내 몸은 기발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파룬이 머리, 손바닥, 복부에서 빠르게 회전하는 것을 느꼈는데 이것은 직접 겪은 확실하고 확실한 체험이다. 밤에 길을 걸을 때, 눈부시게 아름다운 파룬이 내 곁에서 빙빙 돌고 있는 것을 보았고, 다른 시공간의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는데... 직접 파룬따파의 신기함과 절경을 체험하고, 파룬따파를 대단히 탄복하게 된 나는 남편에게 파룬궁 수련을 권유하려고 다짐했다.

그날 밤, 불치병에 걸린 남편은 침대에 앉아, 열심히 소꿉장난을 하는 아이를 보며, 눈물을 흘리며 목이 메어 나에게 자신의 몸을 잘 돌보아야 나중에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나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나중에 당신이 다시 가정을 이룬다면 이 아이가 너무

어리기에 내가 죽으면 아이가 너무 쓸쓸해요.” 라고 말했다. 말하다가 흐느끼면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었다.

아이는 어리병병했고, 집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무엇에 직면했는지를 그는 결코 알지 못했으므로 여전히 즐겁고 근심이 없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아이를 안심할 수 없는 이상

아이를 위해 파룬궁을 수련합시다.” 라고 말했다니 남편이 승낙했다.

파룬따파를 수련하고 반 달 만에 남편의 재발한 종양이 사라졌고 병은 완전히 나았다! 나와 남편, 가족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물론 더 이상 북경에 가서 재검사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 하루는 아이가 나에게 물었다: “엄마, 아빠는 왜 혼합종양이 안 생겨요, 혼합종양이 생기면 우리 다시 북경으로 놀러 가자요!” 아이의 말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울 수도 웃을 수도 없었다.

### 위대한 불법이 세상을 뒤흔들다

진실의 모든 것을 마주한 나는 깜짝 놀란 나머지 감동뿐이었다. 온 인류의 모든 책을 뒤져봐도 이 신비롭고 오묘함이 나타난 원인을 찾을 수 없다. 나는 어찌 이런 복이 있으며, 대법과 인연을 맺게 된 행운에 감탄했다.

나중에 일어난 더 많은 신기한 일 중에서 나는 파룬따파와 함께 있다는 것은 무한한 영광과 자랑, 그리고 행복함을 느꼈고, 파룬따파에 대한 나의 믿음을 확고히 했다. 위대한 불법의 위력은 비할 데 없이 거대하다. 무신론의 독해, 진화론의 거짓말 등등 바르지 않은 것들이 더는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었고, 파룬따파 수련의 길에서 나는 반드시 곳곳이 걸어

진실의 모든 것을 마주한 나는 깜짝 놀란 나머지 감동뿐이었다. 온 인류의 모든 책을 뒤져봐도 이 신비롭고 오묘함이 나타난 원인을 찾을 수 없다. 나는 어찌 이런 복이 있으며, 대법과 인연을 맺게 된 행운에 감탄했다.

는 파룬따파와 함께 있다는 것은 무한한 영광과 자랑, 그리고 행복함을 느꼈고, 파룬따파에 대한 나의 믿음을 확고히 했다. 위대한 불법의 위력은 비할 데 없이 거대하다. 무신론의 독해, 진화론의 거짓말 등등 바르지 않은 것들이 더는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었고, 파룬따파 수련의 길에서 나는 반드시 곳곳이 걸어



수련해 봅시다. 전국적으로 몇천만 명이 파룬궁을 배우며 수련하고 있는데 병을 제거하고 몸을 튼튼히 하는 데 특효가 있어요.” 라고 그를 위로했다. 중대장이 말한 대로 양의, 한의사도 효과가 없자 칭양은 고향으로 돌아가 민간요법을 찾았다. 민간요법으로 3개월을 치료했는데, 부대로 복귀하던 날 밤 병이 재발했다.

이번에 칭양은 파룬궁이 떠올랐다. 그는 “전국 각 계층에 이미 몇천만 명이 배우고 있는데, 전문가도 있고, 학자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주견과 사상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무엇을 쉽게 믿을 수 있을까? 살기 위해 나도 파룬궁을 수련하겠다.” 라고 생각했다.

그는 전우를 찾아갔다. 알고 보니 전 중대에서 이미 10여 명의 장병이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었다. 중대장을 포함해 단장 참모장도 《전법륜》을 보았으며, 모두가 이것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책이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칭양은 《전법륜》 책을 빌려 매일 읽었을 뿐만 아니라 또 매일 파룬궁 창시자 리홍쯔 사부님의 강의 비디오를 보았다.

책을 읽고 그는 인생 그리고 객관적인 세계에 대한 의혹과 궁금증, 특히 사람이 왜 살아 있는가 하는 것들을 모두 《전법륜》 책에서 답안을 찾았다. 어느덧 석달이 지났다. 칭양은 감기와 비슷한 열이 나고 기침도 동반하는 증상이 나타났지만, 그 후로 요혈 증상이 완화되었고 며칠 지나서 소변도 정상으로 되었다는 것에 그는 놀라웠다. 감기의 증상은 약을 한 알도 먹지 않고 좋아졌는데 정말 신기했다! 칭양은 건강이 회복되고 그는 다시 생명의 봄을 맞았다.

### 불광의 혜택을 받고 광명을 맞이하다

칭양은 군 복무를 할 때 고향의 한 소녀를 알게 되었다. 그는 상대방에게 병이 생겨서부터 파룬궁을 수련한 전 과정을 솔직하게 말했고, 그녀는 그와 사귀게 되어 매우 기뻐했다. 칭양은 제대 후 그녀와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귀여운 딸을 가졌다.

지금 그들의 딸은 18살이다. 그녀도 아빠, 엄마와 마찬가지로 파룬따파 수련에 들어섰다. 그들 세 식구는 파룬따파 불광의 혜택을 받아 더없이 행복하다.







## 대난을 겪고 크나큰 복을 얻다

문/샤오원(肖韵)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은 생이별이라 할 수 있다. 그날 밤, 불치병에 걸린 남편은 침대에 앉아 바닥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를 보며 목이 메어 나에게 말했다. “자신을 잘 돌보고, 나중에 가정을 꾸려 아이를 잘 키워주길 바라요…”

### 큰 난관으로 어려운 곤경에 빠지다

21년 전, 나는 30살의 나이로 여러 가지 멋진 인생을 생각하며 인간 세상에서 열심히 싸워왔다. 나는 온갖 궁리를 다 하며 인맥 관계로 직장을 이동하면서 생활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려고 했다. 마침내 남편이 좋은 직장으로 전근했고, 나도 교육 부서에서 시 전업 국으로 전근하려는 중이었고, 우리는 또 똑똑하고 활발한 아들이 있다. 또래들은 우리를 매우 부러워했다.

하지만 변덕스러운 인생은 슬픔이 항상 행복보다 많았다.



그해 봄, 29세의 남편은 북경 화합 병원에서 악성 종양 진단을 받았다.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나의 정신도 거의 무너졌다. 극도로 고통스러운 나는 남편 몰래 병원 복도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실컷 울고는 병실에 들어가 남편을 시중들었다. 붉게 부은 내 눈을 보고 남편이 나에게 “당신이 감기 걸렸나요? 아니면 아이가 생각났어요? 왜 울고 온 것 같아요?” 라고 물었다. 나는 홀가분한 척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을 잃게 될 두려움이 가끔 내 가슴을 우려 쳤다. 남편이 수술 후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 그에게 병을 숨길 수밖에 없었고, 양쪽 노인들이 충격을 견디지 못할까 봐, 그들도 속일 수밖에 없었다.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으니 여동생에게만 말했다.

여동생도 나와 함께 울며 함께 견딜 수밖에 없었다. 곧 남편을 잃게 될 거라는 생각에, 어린아이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운명이 왜 이렇게 고

달픈지를 생각했다?

나는 인가가 드문 곳에 숨어서 소리 없이 울며, 마음속으로 주님을 외쳤는데…무신론에 세뇌된 나는 큰 재난이 닥쳤을 때 도리어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나의 남편을 살려달라고, 병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빌었다.

북경에서 약 5개월 정도 있을 때, 나는 시간만 내면, 이른 아침에 옹화궁에 달려가 향을 피우고 절을 했고, 매번 제일 먼저 도착해 인내심을 가지고 문을 여는 중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경건해도 남편의 몸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었다.

남편의 병을 치료하는 데는 큰돈이 필요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이미 돈이 없었다. 나는 가는 곳마다 꿀 수밖에 없고, 남에게 무릎을 꿇고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이 한스러웠다. 친척은 내가 갚을 능력이 없을까 봐 나에게 돈을 빌려줄 엄두를 내지 못하기에 나는 은행에 가서 아파트 대출을 저당 잡혔다. 빌려온 돈은 북경에 가서 재검사를 한 번 하고, 약을 사니 다 써버렸다. 집에 돌아오니 빈털터리가 되었다.

소리 없는 눈물은 항상 한밤중에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고, 어둠 속에서 나는 신이 나타나기를 기도했다.

우여곡절 끝에 죽을 고비에서 다시 살아났다  
큰 재난에서 나의 경건한 마음이 마침내



창공을 감동하게 해 하늘의 은혜와 보살핌을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학부모 한 분이 찾아와 나에게 권유했다. “당신 남편의 병은 큰 병이 아니며 파룬궁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파룬궁은 병을 제거하고 몸을 튼튼히 하는 특효가 있어요.” 그녀는 파룬궁을 수련하라고 나를 권유했고, 나도 해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이렇게 신기한 것이 어디 있는가며 믿지 않았다. 나도 명의로 치료하지 못하는 것을 연공 하여 치료할 수 있다는 것에 의심스러웠다?

그러나 그 학부모의 진지한 태도, 말투와 굳은 눈빛에서 나는 약간의 믿음이 생겨 남편에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권유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책을 읽고 연공을 시작했다. 당시 나는 《전법륜》을 몇 페이지지만 보고 파룬파파의 박대정심한 법리에 깊이 사로잡혔다. 사람이 왜 병들고, 재앙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비가 있는지 알게 되었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사람이 살아가는 진정한